

미술대학이 그려온 60년...순수미술의 정체성 이어와

김재희 기자 jaylove0413@khu.ac.kr

미술대학(미대)이 60주년을 맞아 ‘설립 60주년 기념: Time Archive 60, 다시 선언하다’ 전시를 개최했다. 전시는 오는 23일까지 KUMA미술관에서 열린다. 우리신문은 이를 계기로 미대가 걸어온 60년의 역사와 앞으로의 미래를 살펴본다.

변화와 도약의 60년 ‘창의성’과 ‘인간다움’을 추구

미대는 1966년 사범대학 미술교육과에서 시작됐다. 교육과라는 명칭과 달리 3개 전공(동양화·서양화·조소)을 중심으로 작가 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했다. 이후 1998년 창작 교육의 기반을 바탕으로 문리과 대학 미술학부로 개편됐으나, 이듬해에 정원 규모를 고려해 무용학과와 함께 예술학부로 편제됐다. 이후 순수미술의 독자적인 교육 체제가

필요하다는 교수진의 요구에 따라 2003년 지금의 독립된 미술대학이 탄생했다.

전시 공간도 변화를 거쳤다. 1970년대 중앙도서관에 자리했던 ‘경희미술관’은 학생회관으로 이전해 ‘경희갤러리’로 운영되다 끝내 사라졌다. 한동안 전시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던 미대는 2006년 현재의 KUMA미술관을 건립했다. 이후 KUMA미술관은 학생들의 작품을 발표하고 외부와 교류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학제 변화 속에서도 미대 교육의 근간은 흔들리지 않았다.

미대 나형민(미술학) 학장은 미대의 정체성으로 ‘창의성’과 ‘인간다움’을 꼽았다. 그는 창의성을 “순수미술에 뿌리를 두되 시대 변화에 맞춰 새로운 예술을 선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람의 인품이 작품에 드러나기 마련”이라며 “학생들이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인격도 도야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앞으로 그려갈 60년 ‘문화세계의 창조’를 실천

미대는 순수미술의 정체성을 이어가는 동시에 교육의 첨단화와 세계화에도 중점을 둘 계획이다.

2012년에는 뉴미디어와 예술경영 트랙을 도입해 순수미술을 타 학문·산업 분야에 접목하는 교육 체계를 마련했다. 학생들의 활동 무대를 넓히기 위한 국제교류도 이어왔다. 독일·중국·홍콩·일본·미국 등의 대학 및 기관과 교환전시와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지난해에는 로마미술아카데미와 전공 연수를 진행했다.

나 학장은 “교내 구성원과 지역주민이 예술을 가까이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화세계의 창조’를 실천하는 일”이라 말했다.

그는 “미대가 구성원들의 일상동선과 떨어져 있어 아쉽다”며 “KUMA미술관이 산책 삼아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관람객이 미술대학 설립 60주년 기념전 ‘Time Archive 60, 다시 선언하다’를 감상하고 있다. (사진=김재희 기자)

한자리에 총망라한 60주년의 시간

미대는 설립 60주년을 기념해 ‘Time Archive 60, 다시 선언하다’ 전시를 개최했다. 이번 기념전에는 현직 교·강사와 명예·석좌교수, 동문 작가, 재학생 등 138명이 참여했다.

미술관 1~3층에서는 경희미술의

흐름을 조망하는 동문종합전이, 4층에서는 경희대 출신 작가를 포함한 신진작가 35명의 특별전 ‘취향의 기록-오늘의 작가, 내일의 컬렉션’이 열린다.

전시에 참여한 이상열(석박사통합과정 4기)씨는 “현재 활동하고 계신 작가님들의 작품과 더불어 대선배님들을 실제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소중하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인간에겐 사랑을, 인류에겐 평화를”

이금화(경희기록관)

경희의 유산② 『평화의 전당』

‘경희의 유산’ 2차 연재를 시작하며-경희기록관은 2026년 가을학기부터 1년간 ‘경희의 유산’ 2차 연재를 이어간다. 이번 연재에서는 캠퍼스를 이루고 있는 다양한 건축물, 장소를 중심으로, 경희인의 삶과 추억, 지금도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있는 역사의 흔적을 소개한다.

9월 21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평화의 날이다. 매년 이날이 되면, 뉴욕 유엔 본부에선 ‘평화의 종’을 울리는 타종식이 열리고, 종소리에 호응하듯 전 세계 각지에서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다양한 모임과 행사가 이어진다. 1981년 11월 제36차 유엔총회를 통해 세계평화의 날이 제정된 이후, 경희도 이날을 기념하는 국제회의(2006년부터 ‘Peace BAR Festival(약칭 PBF)’로 확대)를 매년 개최해 오고 있다. 올해로 벌써 45회째다.

그런데 이날을 만들자고 처음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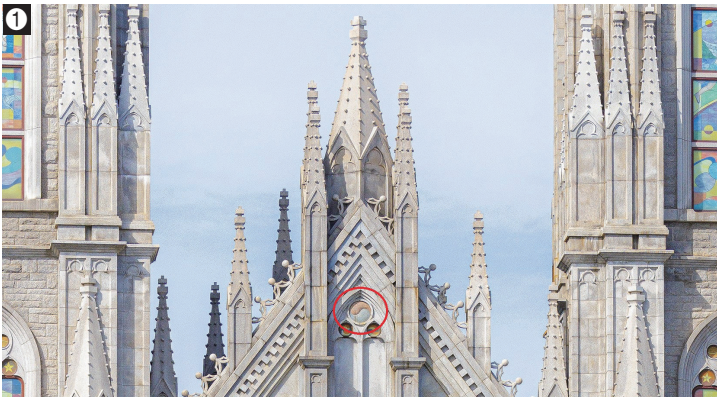
안한 사람은 누구일까. 바로 경희학원 설립자 미원(美源) 조영식 박사다. 경희가 세계평화의 날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단지 우리 대학이 제정에 기여했기 때문은 아니다. 설립 이래 우리 대학은 학문적 탁월성과 함께 인류 사회에 공헌하는 실천적 노력을 중시해 왔다. 그래서 경희의 교가도 ‘은오한 학술 연구, 변전하는 세계의 진리 탐구’와 함께 ‘인류 위해 일하고, 평화 위해 싸우자’고 호소한다. 학문과 평화는 우리 대학이 추구하는 가치의 두 축인 것이다.

평화를 중시하는 경희의 전통은 캠퍼스 곳곳에 구체적인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평화의 전당이다. 서울캠퍼스 상징과도 같은 이 건물은 1999년 개교 50주년에 맞춰 문을 열었다. 총 4,500석(현재 4,250석)의 객석을 갖춘 평화의 전당은 개관 당시 아시아 최대 문화예술공간으로 주목받았다. 졸업식, 입학식, PBF 같은 교내 행사는 물론 외부 기관이 주최하는 예술 공연, 시상식도 자주 열린다. 드라마나 영화에도 종종 등장해서, 캠퍼스를 방문하는 일반 시민, 외국인 관광객들이 반드시 사진에 담고 싶

어 하는 인기 장소이기도 하다.

화강석으로 마무리된 중세 고딕 양식의 건물 외관은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성 미셸 성당을 모델로 했다. 건물 곳곳에 경희의 이상과 한국의 전통미를 상징하는 요소가 녹아들어 있다. 평화의 전당 건립의 역사는 197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교생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큰 강당을 짓자는 구상이 이때 시작됐다. 1978년 5월 설계를 완성했고, 1981년 8월 건축 허가를 받아 공사가 시작됐다. 당시 국내는 물론 아시아에도 전례가 없는 대강당을 짓는 공사였다. 난관이 없을 리가 없다. 그런데 가장 큰 장애물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불거졌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1983년 어느 날, 당시 우리 대학 바로 옆 이문동에 소재하고 있던 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에서 사람이 찾아왔다. 짓고 있는 건물 꼭대기 24.8m탑의 높이를 절반으로 낮출 것을 요구했다. 강당이 완성되면 안기부에 보안상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었다. 그 후에도 이런저런 이유를 들며 계속 공사를 어렵게 했다. ‘풍수지리상 국가 운명에 문제가 생긴다’, ‘북한군이 쳐들어왔을 때 건물 옥탑이



①건물 정면에 새겨져 있는 태극 문양(원부분). 서구적 외관에 한국적 요소가 녹아들어 있다. ② ‘비둘리아’ 대강당에 얹힌 궁금증을 소개한 대학주보 기사(1995년 3월 6일 자)

공격의 거점이 된다’ 등등.

1980년대가 어떤 시대인가. 군사정권의 서슬이 시퍼렇던 엄혹한 시절이다. 결국 그들의 요구에 따라 이미 완성된 옥탑 석조물 일부는 철거됐고, 1986년부터 공사는 중단됐다. 다행히 1995년에 안기부가 내국동으로 이전하면서 공사가 재개됐지만, 근 10년간 평화의 전당은 짓다 만 어정쩡한 모습으로 권위주의 시대 굴곡을 상징하듯 캠퍼스 한켠에 묵묵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 시절 학생들 사이에서 이 짓다만 대강당의 이름은 비둘리아관이였다. 당시 유행하던 TV 광고 중에 아무리 써도 줄지 않는 알뜰한 비누라는 점을 강조한 “아직도 그대로



네!”라는 카피가 있었다. 그 비누의 이름이 비둘리아였다. 10년 가까이 짓다 만 모습 그대로인 건물. 오랜만에 모교를 찾아 언덕 위를 바라본 졸업생들 입에서 “아직도 그대로네!”라는 탄탄이 나올 법도 하지 않은가.

올해로 평화의 전당이 완공된 지 27년이 된다. 로비에는 설립자의 휘호로 이런 문구가 걸려있다. “인간에겐 사랑을, 인류에겐 평화를.” 학문과 평화를 사랑하는 경희의 전통이 50년 후, 100년 후에도 아직도 그대로, 여전히 그대로 캠퍼스에 살아 숨쉬길 소망해 본다.